

속담과 체질 15

목양체질(Hepatonia)과 고혈압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물빛만 보아도 짐작이 되는 깊은 소(沼) 위로 솟은 바위에서 곤추 세운 몸을 던져 물의 바닥을 향해 내려 꽃듯이 튀면 몸은 마치 물에 박히는 화살처럼 어두운 곳으로 내려간다. 그때 내 키가 한 길이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저 속담에 나오는 ‘열 길 물 속’은 실감이 잘 안날 것이다. 그런데 이 속담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일까. 주변을 둘러보자. 제 속을 너무도 쉽게 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그런 무리(群)의 특징이듯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그룹도 있다. 그런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바로 체질이다.

본태성고혈압

권도원 선생이 제시한 8체질별 섭생표에서 목양체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당신의 혈압은 일반 평균보다 높은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토양체질과 금양체질이 건강한 상태로 저혈압일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도 있다.¹⁾ 사실 저혈압도 그렇지만 생리적인 고혈압 즉 본태성고혈압에 관한 언급은 아직도 의학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더더욱, 나는 8체질론과 8체질의학을 대외에 알리는 간단한 팸플릿을 만들어야 한다면 ‘목양체질의 고혈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체질이란 다름’이니 그렇다. 권도원 선생이 목양체질의 생리적인 고혈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것은 1994년 2월 19일에 있었던 도올서원 강연이다. 체질생리에 관하여, “병원에서 혈압을 잴 기회가 있어서 재니가 180/90mmHg가 되자 의사가 놀라면서 당장 입원해야겠다고 해서 입원을 해 혈압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140mmHg으로 떨어졌어요. 그 때부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혈압 환자라고 자처하는데 그 사람의 생리는 그렇게 되면 안되요. 다시 180mmHg으로 올라가야 다시 과거와 같은 건강을 되찾게 되요. 그것이 체질생리예요.” 이렇게 설명했다.

이기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한의학과 석사과정인 것이 개설된 것은 1966년부터이다.²⁾ 권도원 선생은 외부에서 출강하는³⁾ 강사 신분으로 체질의학을 전공한 세 명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다. 염태환, 김정선, 이기태⁴⁾ 세 명이다. 이 중 이기태의 논문인 「본태성고혈압의 체질적 분포에 관한 조사 연구」는 8체질의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하지만 그런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제대로 평가된 적도 없다. 그가 논문을 제출한

2) 석사학위논문

년도	이름	논문명
1968	송일병	사상약물의 약리학적 고찰
1968	성수경	사상의학 체질감별에 관한 연구
1969	염태환	토산인 제 2병태의 임상학적 연구
1970	김정선	목양인 제 2병태 임상 통계적 연구
1974	최중백	사상의학이 동양의학에 미치는 역사학적인 의의
1975	우기진	사상인에 대한 성격심리적 고찰
1976	송병기	동의수세보원 신정방에 사용된 한약재의 본초 성능에 관한 통계적 연구

△ 『사상체질의학회 40년사』 p.272

위촉장 (한의학박사 노정우 교수) 이기태의 한의학박사 학위논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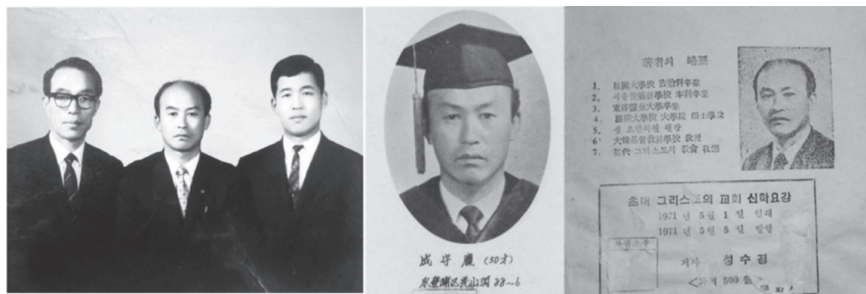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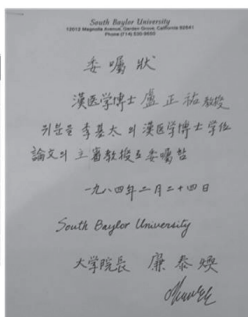


그림 12 1965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체질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염태환) 노정우 교수 성수경 송일병 『사상체질의학회 40년사』 2010. p.20
 『서울시한의사회 사진집』 1969.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요강』 1971.

것은 1970년이다. 이기태는 논문의 서두에서 E. Frank가 1911년에, 신염, 위축신, 요로장애 등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없이 된 고혈압을 본태성고혈압(Essential Hypertension)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체질론적 입장에서 본태성고혈압이 어떤 특정한 체질과 연관이 있는지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조사한 연구라고 하였다. 1967년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⁵⁾한 이기태는 1969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위치한 권도원 선생의 대원한의원에서 임상수련(인턴십)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기간에 대원한의원에 내원한 고혈압 환자 175명을 대상으로 본태성고혈압의 증후가 어느 체질에서 발견되는가를 조사한 결과, 고혈압 환자 분포 중 1위가 JI (Jupita 1)⁶⁾으로 50%인데, 다른 체질은 다 명료한 원인질환을 가지고 고혈압이 발생하고 있으나, JI만은 원인질환을 가지지 않은 고혈압임이 발견되었다. 체질론이 인간의 다름을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아주 획기적이다. JI을 다른 일곱 개의 그룹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지표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0년에 권도원 선생이 직접 지도한 이런 훌륭한 논문이 작성되었는데, 권도원 선생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데는 왜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내가 이 논문을 처음 접했던 2000년대 초중반에 ‘논문을 제출한 첫 해에는 통과하지 못하고 1년 후에 통과했다.’고 전한 사람이 있기는 했어도, 나는 당연히 이기태 선배가 석사학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2010년에 나온 『사상체질의학회 40년사』를 보고 그때까지 가졌던 의문이 조금 풀리기는 했다. 결국 이기태의 논문은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도미(渡美)했다. (내가 1992년에 자양동에서 한의원을 인수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1986년에 나온 ‘경희대학교 한의과대

학 동문요람’에 보니 미국 주소가 있었다. 그래서 2010년 4월 5일에 편지를 써서 미국으로 띄웠다. 그리고 같은 날, 뉴욕에 계시던 염태환⁷⁾ 선생께도 첫 편지를 보냈다. 물론 염태환 선생께는 첫 서신부터 많은 것을 물었다. 워싱턴주 벨뷰(Bellevue)에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지만 염태환 선생과는 2013년 3월까지 서신이 열 번 가고 왔다. 내가 두 번째 서신에서 이기태 선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기태 씨와 연락이 끊긴 것이 20년이 넘는다.”고 하셨다. 답장을 받았던 당시⁸⁾에는 염 선생께서 무언가 숨긴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염 선생의 표현이 거짓은 아니었다. 솔직한 분이였다. 염태환 선생은 1982년에 도미했고 LA의 Reseda에서 염한의원을 하면서 사우스베이로(South Baylo) 한의과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질의학 전공으로 최초로 석사학위를 받았던 송일병과 성수경은 노정우⁹⁾ 교수가 지도했다. 노정우 선생은 1976년 5월에 하와이로 갔다. 그리고 1978년 8월부터 호놀룰루에 클리닉을 열었다. 1984년 6월에는 뉴욕주립대학에서 침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2021년에 경희대 의과대학의 김남일 교수가 ‘정리 좀 해 보라.’고 준 노정우 선생의 유품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1984년 2월 24일에 염태환 선생이 사우스베이로대학의 대학원장 명의로 발행한 위촉장이었다. 이기태 선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박사 논문을 쓰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염태환 선생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짐작한다. 아마도 두 사람은 그 후에 소식을 주고받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선생께 이기태 선배에 관해 물었을 때, 그분의 박사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좋았을 것이다. 열 길 물 속보다 더 알 수 없는 속을 가진 사람

은 바로 목양체질인데, 당신계선 목양체질도 아니면서 말이다.

번외편

한의대에는 역대로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그룹이 있었다. (뉘 동양의대 시절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사’라고 불렀다. 나는 『사상체질의학회 40년사』에 실린 ‘노정우 성수경 송일병’ 세 분의 사진¹⁰⁾ 속에서 가운데 분의 벗겨진 머리가 자주 떠올랐다.

그래서 앞에 말한 ‘동문요람’에서 찾아보았는데 성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해맸다. 결론은 동문요람에 이름이 누락되었던 것이다. 학교를 실지로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실릴 수는 있겠지만, 엄연히 졸업한 사람이 동문명부에서 사라진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 분은 동양의대를 졸업할 때 42세였고,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는 48세였다.

성수경¹¹⁾ 선배의 부친은 한국에서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던 성낙소(成樂紹) 목사이다.¹²⁾ 성수경 목사의 한의업은 전도의 목적이 우선이었고 또 생계활동으로도 필요했다. 그는 1920년 7월 27일에 태어났고 단국대학교 정치학과와 서울성서신학교 본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1962년에 동양의약대학을 졸업(11회)했고, 1963년 3월에 제15회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다. 1968년에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성요한의원(충정로)과 신성한의원(독산동)을 했다. 필운동교회와 위동교회의 목사, 대한기독교신학교 교수,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신길동 114-1) 목사였다. 1978년에 뇌출혈로 별세했다. 저서로는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요강』(1971. 5. 5.)이 있다.¹³⁾

이강재 / 임상8체질연구회

각주

- 1) 권도원, 「체질침 치료에 관한 연구」 『명대논문집』 (제7집) 1974. 1. p.17
8체질에서 보는 생명의 신비(2), 『소금과 빛』 (171호) 1999. 6. p.171
- 2) 1965년 당시에 학부에는 사상의학 과목이 없었는데, 대학원에 체질의학(사상의학) 전공을 신청한 것을 문교부가 승인했다.고 송일병 선생이 말했다.
- 3) 권도원 선생은, 1965년에 동양의과대학이 경희대학교에 합병되기 이전부터 동양의대에 출강하고 있었다.
- 4) 李基太(1940.10.6. ~ 2018.12.22.)
- 5) 경희대 한의학과 14기
- 6) 권도원 선생의 체질침 「차 논문」에서 목양인 제 2병태(Jupita 1)는 「2차 논문」에서 목양체질(JUPITO)이 된다.
- 7) 廉泰煥(1933.9.10. ~ 2024.6.20.)
- 8) 2010. 5. 3.
- 9) 盧正祐(1918.12.28. ~ 2008.1.28.)
- 10) 이 사진은 송일병 선생이 『사상체질의학회 40년사』를 편집한 이강성 원장에게 제공했다.
- 11) 成守慶(1920.7.27. ~ 1978)
- 12) 1927년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서 기독교(基督之敎會)를 시작했다.
- 13) 자료 탐색 도움 : 조동호 목사(빛과생명교회) 한기춘 원장(맥한의원)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

본 지면의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